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병식
초당대 총장

유능한 지도자가 지나야 할 핵심 능력 중의 하나가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일'이다. 그러나 복합 다원화된 사회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리 대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지도자들은 이를 끊임없이 시도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엔이 96년에 창립한 워싱턴 소재 'UN 밀레니움 프로젝트'이다. 세계적인 2500여 명의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미래 연구 싱크탱크다. 최근에 '15대 도전과제 및 미래 사회 동인(動因)'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주기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시적 흐름인 미래 메가트렌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

21세기 미래 사회, '안전'이 먼저다

표해 오고 있다. 미국 정보위원회(NIC)의 미래 보고서 '글로벌 트렌드 2025', 일본 정부의 '이노베이션 2025', 영국 국방성 산하 발전 구상 독트린센터의 '전략적 글로벌 트렌드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이 보고서들을 정리, 요약해 보면 미래의 거시적 변화를 크게 여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예견하고 있다. 환경과 자문제의 심화,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 및 글로벌화, 인구 구조 변화, 기술의 융합 가속화, 안전과 안보 등을 변화 방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세계 보고서들이 제시하는 이 트렌드가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의미를 지닐 것이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 트렌드가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닌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벌써 우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분석하여 지적한 바 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재난에 대응하는 사회의 안전'에 관한 노력이다. 재해, 재난의 문제는 이제 세계 모두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안전은 모든 일의 전제조건이기도 하지만 최근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비롯하여 대규모 자연재해 및 인재(人災)가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도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재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워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 우리나라는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2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한 나라가 되었다. 인구가 5000만 명이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되어 선진국대열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이에 걸 맞는 안전에 대한 의식과 진정성, 대응하는 자세는 너무나 취약하다.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한 압축 성장의 대가가 물질적 정신적 요인으로 남아, 우리 주변 곳곳에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는 변화된 기후의 영향을 받아 대형 태풍, 홍수 등의 발생이 심히 우려되고 있고, 지진으로부터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이다. 최근의 몇 경우만 보더라도, 즉 1년여 전의 불라벤 태풍, 전국적 순환 정전사태, 급근 초 경주 마우나리조트의 붕괴사고 등에서 보듯이 곳곳이 안전지대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원전, 고속철도, 지하철, 가스관, 송유관, 초고압 전력망 등 고도의 대형 시설물 등이 좁은 국토에 밀집되어 있다. 또한 북한과의 충돌이나 테러 가능성, 이른바 북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보다 폭넓은 종합적인 대응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여기에서 해양교통, 항공, 통신망 및 금융 서비스와 행정서비스 등의 사고는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망의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면 국민 생명과 경제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안전관리체제가 구축되어 통합하여 관리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재난 관련 업무는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이 주도하고 있는데 화재, 가뭄, 폭우와 홍수 등에 치중되어 있다. 급증하는 산업 재해와 대형 인재에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안전에 대한 이해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며 일반인들은 안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난 진행에 대한 정보와 대처 요령 등을 일반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정보체계와 인프라도 잘 마련되어야 한다.

생태위베리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꽃 같은 우리 아이들을, 300여명이나 가슴에 묻고 말 할 수 없는 슬픔으로 절규하며 '안전한 사회'를 갈망해 본다.

社說

참사 관련 망언 쏟아낸 지만원씨 단죄해야

터무니 없는 언행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보수 논객 지만원씨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열도당토얌은 망발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유가족과 국민 모두가 크나큰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를 5·18과 연결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희생자를 모욕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망언을 한 지씨를 엄중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씨는 자신의 인터넷사이트 올린 글에서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획책할 '제2의 5·18 반란'에 지금부터 손을 써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 세월호가 진도에서 침몰하는 바람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누구보다도 참대한 심정인데 도대체 사고와 5·18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이어 그는 "무능한 박근혜 퇴진"과 아울러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가 바로 북한의 코앞에서 벌어질 모양"이라며 "시제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고도 썼다. 피해자를 욕보이고, 역장이 무너지는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지씨는 과연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씨는 과거 배우 문근영을 향해 '빨치산' 발언을 하고, 신문에 5.18 민주화 운동을 '소수의 죄악이 북의 사주를 받아 일어난 폭동'이라고 광고했다가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렇듯 이미 이성을 잃은 지씨라지만, 이번 발언은 그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해 준다.

경찰은 지씨의 망언 직후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악성 유언비어를 발본색원해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한 만큼 지씨가 다시는 허황된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도록 단죄해야 한다. 그래야만 광주·전남 지역의 코앞에서 벌어질 모양"이라며 "시제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언제까지 학교폭력에 희생돼야만 하는가

광주의 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했다. 광주에서 이달 초 일주일새 3명의 학생이 잇달아 자살한 이후 4주 만에 또 다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안타까움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2일 밤 10시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A군이 투신해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한다.

A군은 유서에서 자신을 괴롭힌 학생들의 이름과 내용을 언급하고 두발 단속 등 학생인권문제, 교육시스템에 대한 불만 등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년 전 학생들에게 급식을 빼앗겼으나 학교 측이 해당 학생들을 처벌하지 않고, 적당히 처리해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적고 있다.

이따른 학생 자살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한계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경남 진주지역의 한 사립고에서는 학내에서 학교폭력으로 학

생 2명이 숨져 충격을 주었다. 학생들이 얼마나 희생돼야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지 참담할 따름이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왕따나 학교폭력에 의한 학생들의 자살로 우리 사회가 들끓어 왔지만 무엇 하나 달라진 게 없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경찰관의 한 아파트에서 A군이 투신해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한다.

A군은 유서에서 자신을 괴롭힌 학생들의 이름과 내용을 언급하고 두발 단속 등 학생인권문제, 교육시스템에 대한 불만 등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년 전 학생들에게 급식을 빼앗겼으나 학교 측이 해당 학생들을 처벌하지 않고, 적당히 처리해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적고 있다.

이따른 학생 자살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한계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경남 진주지역의 한 사립고에서는 학내에서 학교폭력으로 학

의료칼럼

교정치료는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조진형
전남대치과병원 교수

까운 부분이 있다.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한 부정교합의 원인이 존재하고, 원인에 따라 치료의 시기가 다르며, 더 나아가 아이들마다 그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교정치료를 해오면서 어렵지 않은 교정치료는 없었던 것 같지만 더욱 흥미로워지면서도 어려운 점은 모든 환자가 모두 다른 부정교합의 원인과 정도를 가지고 있고, 환자마다 다른 골격과 골밀도, 치아 형태 및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안타깝게도 교정치료를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교정학회에서는 90년대에 이미 교정치료 시기와 관련된 흥미로운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아이의 나이가 만 7세가 되면 교정검사를 받아보라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 정도가 되리라 생각한다. 왜 7세에 교정검사를 권장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게 되었을까? 바로 이 교정검사를 통해서 그 아이에 맞는 교정치료의 시기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만 7세가 되면 7세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사실이나 부정확했던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며, 7세 이후에 검

사를 하게 되면 7~8세경에 꼭 필요한 교정처치의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7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일까? 첫 번째로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성장 양상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턱(악골)의 성장은 아이들이 완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7세 때 상악과 하악의 모습이 성인의 얼굴을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7세 경 악골의 전후방 성장 양상이나 수직 성장 양상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탓에, 이 시기에 분석을 해 성장에 맞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안면비대칭분석을 통해 비대칭적 성장양상도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과거에는 2차원 방사선사진만을 가지고 시행하던 분석이 최근 치과용 콘빔체티와 3차원 영상 카메라를 이용한 3차원 골격 및 연조직 분석법이 개발돼 매우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두 번째로 상악과 하악 치아의 발육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시기이다. 7세가 되면 일반적으로 사랑니라 불리고 있는 제3대구치를 제외한 모든 치아의 발육이 한 장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통해 관촬, 분석이 가능

하다. 치아의 결손이 있는 지 또는 과잉치가 있는 지, 치아의 맹출 방향이 정상인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시기이다.

세 번째로 치아와 악골의 크기를 비교해 영구치가 맹출할 공간이 충분한 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6세가 되면 상악과 하악 모두 유치 최후방에 제1대구치가 불리는 매우 중요한 영구치가 제일 먼저 맹출하고 이어서 하악과 상악의 절치(앞니)가 나오게 된다. 맹출한 제1대구치와 앞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의 치아는 모두가 유치다. 이 유치들이 있는 공간과 나중에 맹출할 영구치의 크기를 비교해봄으로써 향후 치아의 불규칙한 정도나, 나타날 수 있는 치아사이의 공간을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협조가 비교적 용이한 시기라는 점이다. 4~5세의 어린 아이들이 치과를 방문해 치아모형을 위한 인상을 채득하고, 커다란 방사선 촬영기계에 홀로 서서 촬영을 한다는 것,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 틈에서 구강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교정검사를 받으므로써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교정치료의 시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고

중자산업 발전하려면 유통 질서 확립부터



이경일
국립중자원 전남지원장

다. 주인공 임상옥의 상도는 '財上平如水 人中直似衡-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라 할 수 있다. 즉, 재물은 물과 같아서 독점하려 한다면 반드시 그 재물에 의해 망하고, 사람은 저울과 같이 바르고 정직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파멸을 맞는다는 의미를 지닌 이 한 문장은 최대의 가슴이었던 임상옥의 철학이었다.

거상 임상옥의 상도가 왜 현실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걸까? 불법을 통해 거위 들일 수 있는 이익의 탐욕함을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불법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한 일의 조그만 종자에는 생명의 복잡다단하고 신비로운 특성이 살아 숨쉬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다 같은 종자처럼 보이지만 품종, 발아율, 병해충 감염여부 등이 다를 수 있다. 종자의 품종, 발아율, 병해충 감염여부 등은 농업인 소득, 국민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품종, 발아율 등은 농업생산성에 직결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국민건강과 환경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농업인들이 품종, 발아율을 육안으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립중자원은

국민건강,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확보,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종자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자업 등록, 품종·발아율 및 발아보증시한 등 종자 품질 표시, 종명·품종명·이품종용·유효기간·수량 등 보증표시, 종자 가격표시 등을 해야 한다.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관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00만원(1회 위반 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유통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수입금지 및 수입승인이 되지 않은 종자 옹 공, 옥수수, 유채, 면화 등의 LMO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종자, 집단적으로 제재되는 축제장 및 집단제재의 작물체 등의 시료를 수거해 국내 유통종자의 LMO 혼입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LMO 종자는 안전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후배 교배종으로 인한 생태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LMO 종자 유통 방지는 중

요하다 할 수 있다.

국립중자원 전남지원은 전남지역 22개 시·군과 광주시를 대상으로 작물 성숙기에 맞춰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씨감자는 2월말~4월, 과수묘목, 벼씨는 3~4월, 감장용 채소는 8~9월, 벼성종군은 9~10월, 마늘 등 영양체는 연중 유통조사를 하고 있다. 종자 유통조사와 함께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신고 제도 홍보, 품질표시를 중점으로 병행 준수 지도 등 선진화된 종자 유통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금보다 비싼 종자인 신품종 개발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종자유통질서 확립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할 경우 가격 인하, 품질 향상, 서비스 개선 등을 가져와 경제 이익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나눠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종자 시장 스스로가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無 等 鼓

"하늘나라에선 못다 피운 꽃 피우고 행복하길.." "모두가 비통하고, 미안하고, 안타까웠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여)씨의 영결식이 많은 이들의 눈물 속에 2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화대병원에서 엄수됐다. 아직 꽃도 다 피우지 못한 나이에, 의롭게 떠나는 고인의 장례가 치러지는 내내 식장은 울음바다가 됐다.

박씨와 같이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5인의 세월호 의인' 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 역시 어떻게든 제자들부터 살리려 했던 진정된 스승으로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대피시키는데 혼신을 다했다.

남 교사와 함께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고(故) 최해정 교사. "걱정하지마.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 세월호 침몰 당시 급박한 상황 속에서 10여 명의 학생을 구출하며 자신의 첫 제자들을 지키려 했던 그녀는 올 해 첫 교편을 잡았던 새내기 교사였다.

"지금 아이들 구하려 가야해. 수협 통장에 돈 있으니까 아이들 등복금으로 써. 지들이 온 국민의 가슴을 저미며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승무원들의 살인에 가까운 직무유기가 속속 들어오고, 일부 공직자들의 불지각한 행동이 오버랩되면서 이들 의인들의 숭고한 희생이 더 빛나고 있는 것이다.

단원과 2학년 학생인 고(故) 정차웅군은 "내 구명조끼 내가 입어!"라며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 친구에게 건넸다. 그는 생일을 하루 앞두고 친구를 구하려다 숨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고(故) 남윤철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노래방을 갈 정도로 친구 같은 선생님이었다.

국민들은 성숙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이들을 의사자로 선정해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능으로 일관한 정부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려던 의사가 주저려다 숨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고(故) 남윤철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노래방을 갈 정도로 친구 같은

/*최재호 사회부장 lion@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일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마케팅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